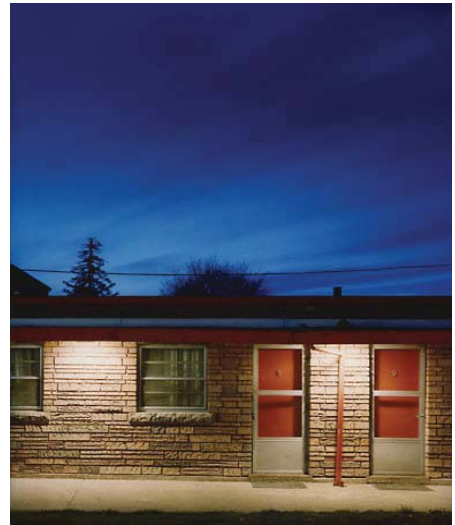


ALEC SOTH

16 July - 29 August 2009

꽤 오랜 시간이 걸린 인터뷰

알렉소스에게 이 한장의 포트레이트 사진을 받기 위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요즘처럼 찍는 것과 찍히는 게 친숙한 시대에는 그는 카메라를 누구보다 어색해하는 '사진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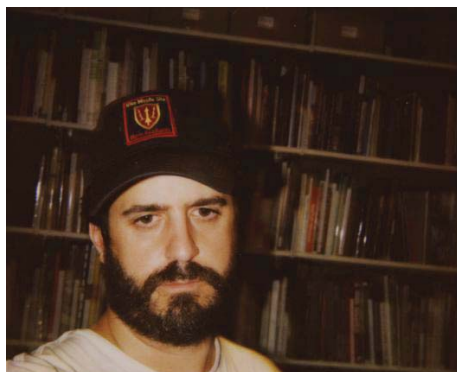
Terrace Court, C print, 101.6x81.3cm, 2005

매그넘 소속 사진가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개 두 가지다. 전쟁터를 뛰어 다니다가 생을 마감한 로버트 카파, 아니면 소형 라이카를 들고 거리에 잠복해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던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하지만 알렉 소스는 찍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영업 사원'처럼 다가가 인터뷰를 시작하는 사진가다. 그렇게 두세 시간에 걸쳐 피사체의 인생사를 접수하고 촬영허가를 받고 나면 사진관에서나 봤을 법한 커다란 대형 카메라를 주섬주섬 설치한다. 우리 눈에는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스스로를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아닌 다큐멘터리 이미지 창조자로 부르는 그에게 당연한 과정이다. 소스의 '나이아가라' 프로젝트는 나이아가라 폭포관광 기념품 가게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폭포사진들과는 다르다. 그가 찍은 모텔의 텅 빈 주차장, 이제 막 결혼식을 올린 부부, 어떻게 설득했는지 알 수 없는 나체의 커플, 씩씩하게도 전당포에서 발견한 결혼반지는 폭포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리고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두 달간 촬영한 '도그 데이즈, 보고타(Dog Days, Bogota)'는 그곳에서 입양한 딸에게 선물하는(척박한 땅에서 건진) 아름다운 기억들이다. 바람 한점 없는 정적인 화면 속 사람과 동물과 공간을 보고 있으면 박찬욱 감독이 왜(박주)를 찍으며 촬영 감독에게 그의 사진을 보여줬는지 알 수 있다. 특히 모텔에서 찍은 'Two Towels'는 꽃무늬 침대보 위에 타일로 만든 한 쌍의 백조 사진인데, <올드보이>와 <친절한 금자씨>(박주)에 이르기까지 박찬욱이 보여주는 '사연많은' 아름다움과 꼭 닮았다. 하지만 그는 20세기 시인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시를 좋아하는, 의외로 삶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다.

만난 사람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어떤 수식어를 사용하나요? 내성적이고 수염이 있고, 4차원인, 미국 중부 살마이라고 말해요. 인사를 나누면서 눈여겨보는 점은요? 그 사람의 눈을 봐요. 이 세계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당신이 사진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처음에는 회화 작품을 만들었는데, 스튜디오에 있으면 언제나 불편했어요. 그후에 잠깐 리처드 롱이나 앤디 골드 워시 같은 대지 미술 스타일의 조각을 만드셨죠. 그 조각물을 촬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진에 흥미를 느끼게 됐어요.

사진으로 돈을 번 첫 번째 재일을 무엇이었나요? 학교를 졸업하고 미네소타에 있는 작은 신문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제게 처음 주어진 일은 영화 촬영장에서 키아누 리브스를 촬영하는 것이었는데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고맙게도 그는 아버지의 낡은 캐논 AE-1을 들고 덜덜 떠는 저를 많이 배려해줬죠.

스스로 '다큐멘터리 이미지의 창조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진은 퍼포먼스의 기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누군가의 포트레이트를 찍을 때 저는 그 대상을 기록하거나 대상에 제 자신을 반영해 촬영하지 않아요. 저는 그 대상과 제 자신이 만나는



지점을 기록합니다. 이 지점을 계획할수록 현실은 제가 상상한 것과 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오한 미는 현실 속에 뿌리를 둔 아름다움'이라는 말도 했잖아요. 최근 마주한 심오한 아름다움은 뭐였나요? 최근 그루지아에서 새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여러 이유로 운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운전사와 동행했는데, 자동차 전면 유리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저는 더러우면서도 깨끗한걸 좋아합니다. 제 자신과 바깥세계의 거리를 유리창을 통해 느꼈죠.

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8x10인치 카메라는 설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가 원하는 그림을 놓치지 않아요? 사실 대형 카메라로 촬영하면 중요한 순간을 많이 놓칩니다. 또한 이v카메라로 움직이는 대상을 찍는다는 건 불가능 하죠. 대신 제 사진에는 고요함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관찰했을 때 발견되는 아름다움이 많거든요.

미시시피 강을 따라 여행하며 만든 <슬리핑 인 미시시피(Sleeping in Mississippi)>에서 많은 사람으로 만났잖아요. 가장 인상적인 사람은 누구였나



Untitled 16, Bogotá, Chromogenic print, 38.1x38.1 cm, 2007



Untitled 29, Bogotá, Chromogenic print, 50.8x50.8cm, 2007

요?수없이 많은 불빛으로 이상아릿하게 장식한 '침실사진(Hermean's Bed)'이 있어요. 그 침실의 주인은 30년동안 한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은퇴하는날 고용주에게 자신은 글을 읽고 쓸수 없다는 사실은 말했다고 해요. 그가 오랜 기간 일할 수있었던 이유는 단 한가지,자신이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요. 아쉽게도 제사진에서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서 행복한 느낌을 표현 하고 전달하고 싶어요.

촬영하기 전에 상대와 몇시간씩 대화를 하는 이유는 뭐죠? 영웁사원의 판매 전략과 같아요. 저는 이 방법을 좋아하지 않지만 종종 그래요..근데 놀라운 건 많은 사람이 이 부탁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당신은 다큐멘터리 사진을 시적으로표현내는 사진가로 유명하죠.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은 누군가요? 저는 시를 많이 읽어요. 시는 사진과 같은 구조로 작용한다고 생각고요. 가장 좋아하는 시는 20세기 미국의 시인인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러시아 춤(Danse Russe)'이예요.

당신의 사진을 참고로 작업한 <박쥐>의 촬영감독은 "뭔가 명확하지 않고 짓누르는 듯 하면서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건조하리만치 중간에 서서 바라보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사진이 조용하지만 강한 인상은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그가 저를 기쁘게 해주려고 한 평갈이네요. 그러나 감독이 말하는 느낌을 제 사진이 주고 있다고는 생각 하지 않아요. 제게 미시시피시리즈는 매우 긍정적인 작품이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군요.

언뜻 우울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비관적인 느낌은 아니예요. 오히려 희망적이죠 당신의 신조와 통한다고 해도 될까요? 아까 말한 윌리엄스의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외롭다.외롭다.외롭기 위해 태어났다. 난 가장 멋지다!(I am loney,loney,/I was born ti be lonet,/ I am best sol)"

매그넵에서 만든 <Fashion Magazine by Alec Soth: Paris / Minnesota>를 보면 칼 라거펠트, 소니아 리키엘 같은 패션계의 거장 들이 등장하죠 혹시 패션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나요? 네, 저는 그 세계와 어울리지 않는 다는거죠. 패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관한 모든 것이예요. 그 세계를 이끄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세련된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저와 너무 다른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네소타에서 사진을 찍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주변 사람의 패션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네소타에서 사진을 찍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주변 사람의 패션 방식을 제 사진에 담아 패션계의 그들과 같이 돋보이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 작품을 파리에서 선보인 건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유명한 사진과 미네소타에서 찍은 사진을 마주 보는 벽에 전시했는데, 저는 대부분 미네소타 사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평소 즐겨입는 스타일은 어떤 건가요? 사진에서 보면 덩수룩한 수염이 당신의 트레이드마크 같던데요. 런던에서 있었던 매그넵 그룹 모임에서 한 사진가가 제가 깜빡 잊고 야구 모자를 쓰지 않은 모습을 보고 무척 놀라더군요. 아마 제가 야구 모자와 수염으로 유명한가 봐요.사실 저는 누군가에게 주목 받는 게 불편해요.

사진 작업과 전시로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있는데, 당신을 가장 사로잡는 지역과 특별한 장소가 있나요? 저는 테네시 주의 멤피스를 사랑합니다. 윌리엄 이글스틴이 이미 촬영하지 않았다면, 저는 남은 인생 동안 그곳을 촬영하며 보내고 싶었어요. 사진가가 되길 잘했다고 생각한 순간은 언제였나요?처음으로 감옥을 방문했을때, 자유가 없는 그 장소에 매혹당했어요. 감옥을 방문 하고 돌아볼수 있어서 행복했고, 거길 떠났을 때는 그곳에 머무를 때보다 더 기뻐요.

사진기를 놓아버리고 싶은 만큼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겠죠? 사진 찍는 행위 자체를 사랑하면 언제나 결과물에 실망했어요. 누가 낱장의 사진모음을 좋아 하겠어요? 저는 이야기하는 '필름메이커'로 불릴 때가 가장 자랑스러워요.

꽃무늬 침대보 위에 두 마리의 백조가 앉아 있는 'Two Towels'는 참 아름다운 사진이예요. 어떻게 찍은 거죠? 그건 우연이였어요. 언젠가 목은 모텔에서 발견하고 촬영한 거죠. 주변에 사물들을 이리저리 배치하면서 찍어도 봤지만,그런 방식에는 금방 흥미를 잃게 되더군요. 이 세상은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미스터리하기 때문이예요.



Two Towels, Chromogenic print, 81.3x101.6cm, 2005



Tricia and Curtis, Chromogenic print, 61x76.2cm, 2005

이번에 한국의 아이엠아트에 전시되는 '나이아가라' 와 '도그 데이즈, 보고타' 시리즈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절대 기록을 위한 다큐멘터리 사진을 만들지 않는다는 걸 강조 하고 싶네요. 전 보고타 전문 사진가가 아닙니다. 스페인어도 할 줄 모르구요. '도그 데이즈, 보고타'는 입양이라는 렌즈에 투영된 저의 보고타 탐험 기록이에요. '나이아가라' 역시 제가 기록 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곳에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행상인을 비롯해 많은 것이 있었지만, 제 관심사는 아니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사랑과 욕망을 위해 채용된 하나의 소재인 거였죠.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당신은 사진을 찍고 있을까요? 흠,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동굴을 사려고 시도하지 않을까요? 아마 저는 사라질 거예요.

NYLON 에디터 김가혜